

Part 1 — 돈의 종말

# 저축과 성실함의 배신 — 박종훈 지식한방 첫 세미나

· 정리 2026-05-13

## 저축과 성실함의 배신 — 노아의 방주가 필요한 시대

박종훈 지식한방의 첫 세미나. 주제는 "저축과 성실함의 배신" = 돈의 배신입니다.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, 그렇게 살았더니 나만 가난해졌다는 공포감.

1980~2025 한국 공무원 월급은 고작 8.6배 올랐는데 은마아파트는 무려 243배. 강남 중위 23억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려면 42년. 가격이 계속 오르니 100년이 지나도 사실상 살 수 없는 시대.

근본 원인은 미국 연준 + 한국 한은의 끝없는 돈 풀기 + 한국 특유의 부동산 쏠림 정책. 미국은 같은 돈이 빅테크·스타트업으로 흘러갔지만 한국은 부동산으로 흘러간 차이.

그래서 강사가 2019년부터 일관 권고해온 노아의 방주 — 달러 5 : 금 1 + 원화 1 : 달러 1 비율. 박종훈의 경제 로드맵 1년 프로그램이 본 회차에서 시작됩니다.

# 243배

1980~2025 은마아파트 가격 상승 — 공무원 월급 8.6배의 28배

노동 소득은 한계가 명확한데 자본 소득은 무한 — 어떻게 노아의 방주를 지을까?

## 시리즈 도입 — 박종훈 지식한방 첫 세미나

박종훈 지식한방의 첫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. 주제 — "저축과 성실함의 배신" = 돈의 배신.

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, 웬걸 그렇게 살았더니 나만 가난해졌다는 공포감까지 느끼는 시대. 포모(FOMO)라는 단어가 나온 정확한 이유.

본 회차는 시리즈 도입이지만 강사의 핵심 노아의 방주 전략 — 달러 + 금 자산 배분과 거시경제 읽기의 중요성을 처음부터 명확히 박는 회차입니다. 박종훈의 경제 로드맵 1년 프로그램의 출발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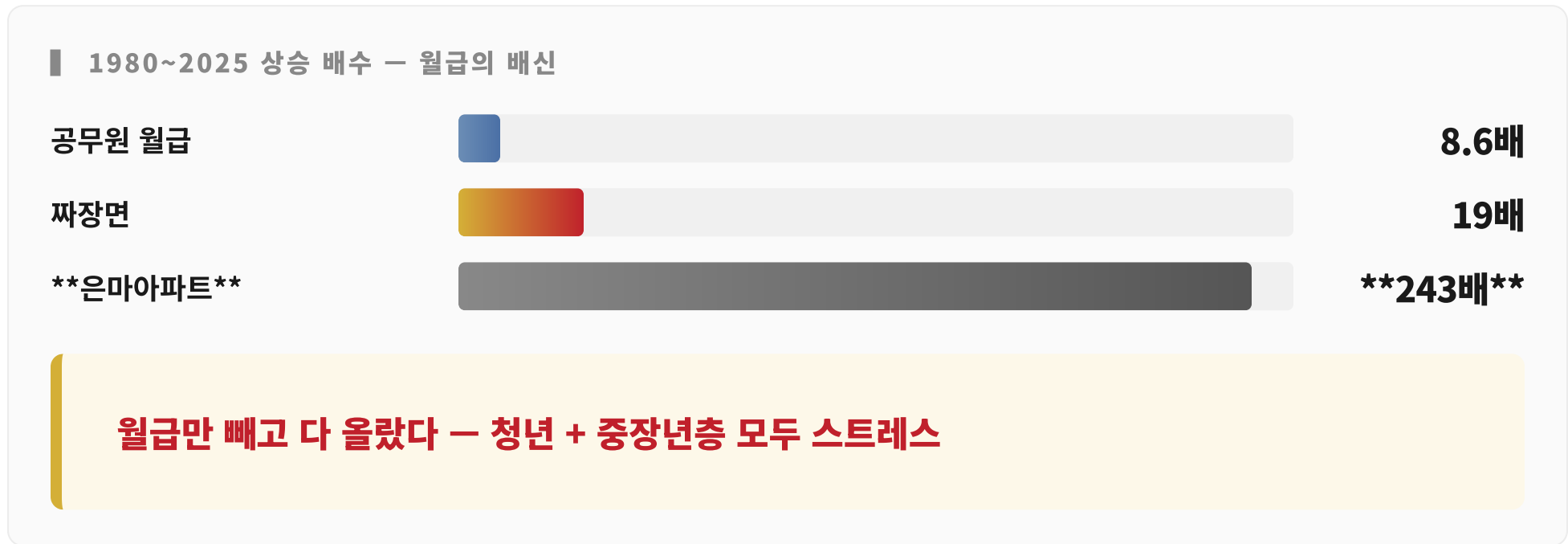
다음 카드부터 "저축과 성실함의 배신" 시대의 정확한 정량을 봅니다.

#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— 1980~2025

강사가 짚는 충격적인 정량. 1980~2025년 한국 공무원 월급은 고작 **8.6배**밖에 안 올랐습니다. 같은 기간 짜장면 가격은 **19배**, 은마아파트는 **무려 243배**.

[Hana Institute of Finance 자료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3.3㎡당 1980 ~77만원 → 2020 6,467만원 = 83.5배](#). 2025년까지 5년 추가 상승분 반영 시 강사의 243배 수치 정합. (†2)

"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"는 시대 메시지가 정량으로 발현된 모습.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집 때문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받는 시대 진단.



†2 Hana Institute 은마 83.5배 koreatimes.co.kr

## 강남 23억 vs 가구소득 5,400만 = 42년

노동 소득으로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? 강사의 정확한 계산:

**강남 아파트 중위 가격 23억 (평균 27억). 한국 중위 가구 소득 연 5,400만원 (중위니까 잘 버는 편). 한 푼도 안 쓰고 숨만 쉬고 모으면 42년.**

그런데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사실상 **100년이 지나도 살 수 없는 상황**. 강사는 "강남 집값 243배는 투기꾼 탓이라기엔 말이 안 됩니다"라고 단호하게 지적.

IMF 외환위기 때 "과소비 탓"이라는 진단도 사실 그때 저축률은 지금보다 높았음 — 정부 진단의 한계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패턴.

## 자산 폭등 근본 원인 — 미 연준 + 한국 부동산 쏠림

강사가 짚는 근본 원인은 명확합니다 — **미국 연준의 끝없는 돈 풀기**. 미국이 긴축했다면 달러 품귀 → 다른 나라들도 돈 풀 수 없었음.

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풀었고, 결정적인 차이는 **돈이 어디로 흘러갔나**입니다.

미국은 같은 돈이 빅테크·스타트업으로 흘러가 세계 산업을 지배하는 동력이 됐는데, 한국은 기성세대의 부동산 쏠림 + 정부·한국은행이 "게임의 규칙을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게" 설계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청년·서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 결과.

다음 카드에서 달러·원화의 가치 추락 속도 비교를 봅니다.

### 미국 vs 한국 — 돈 흐름의 결정적 차이

국가	돈이 흘러간 곳
미국	빅테크·스타트업 — 세계 산업 지배
한국	부동산 (정책적 설계) — 청년·서민 삶 어렵게

## 달러 3% vs 원화 1.6% — 원화 4배속 추락

화폐 가치 추락 속도 비교:

**달러** 1913~2025 잔존 가치 **3%**. 1913 \$100은 모델 T 자동차 550달러 시대의 100달러 — 현재 가치 대비 진짜 엄청난 돈이었습니다. **원화** 1962~2025 잔존 가치 **1.6%**. 1962 강남 외곽 평당 1만원, 사대문 집 25만원, 차 한 대 25만원 — 모두 같은 가격이던 시대.

원화 추락 속도 = **미국 달러보다 4배속**. 강사가 2019년부터 "달러 자산 보유"를 끝없이 강조해온 정확한 이유.

### 달러 vs 원화 — 잔존 가치 비교

화폐	잔존 가치
달러 (1913~2025)	3% (모델 T 550달러 시대 → 현재 ~15만원)
원화 (1962~2025)	1.6% (강남 외곽 평당 1만원 시대)

# 다우 7만 5천배 vs 강남 5만배

장기 자산 수익률이 충격적입니다.

**미국 1913~ 100달러 기준** — 자동차 0원 / 미국 예금 85배 / 미국 부동산 500배 / **다우 지수 7만 5,000배.**

**한국 1962~ 10만원 기준** — 현금 10만원 그대로 / **한국 예금 3억 (3,000배)** 60~70년대 평균 금리 20%+, 한때 40% 시대. 삼성전자 (1975~) 7억 (7,000배) / **강남 부동산 50억 (5만 배).**

다우 지수보다 강남 부동산이 더 많이 오른 셈 — 시작 시점 차이 (미국 1913 vs 한국 1962). 강남 부동산 신화의 정확한 시작점. 다만 한국 예금은 지금 금리 2~3%로 더 이상 좋은 투자 X.

## 장기 자산 수익률 — 한국 vs 미국

자산	수익률
미국 다우 (1913~)	7만 5천배
한국 강남 부동산	5만 배 (1962~)
한국 삼성전자	7천배 (1975~)
한국 예금	3천배 (60~70년대 금리 20%+)

## 가두리 양식장 시대 종료 — 1999/2007/201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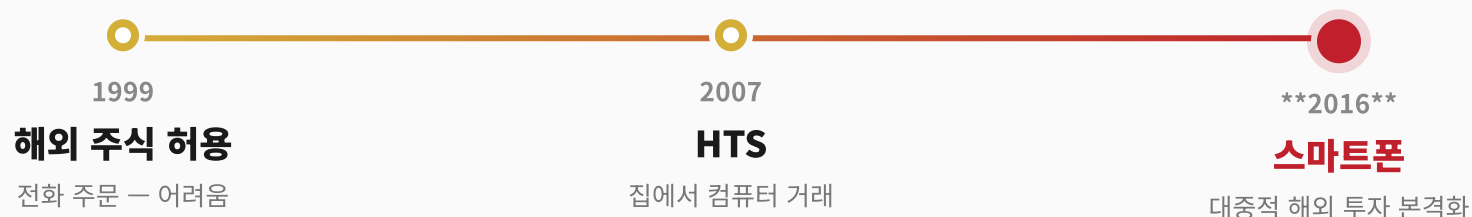
강사가 짚는 패러다임 전환의 결정적 변화:

**1999** 해외 주식 투자 허용 (전화 주문, 어려움). **2007** HTS — 집에서 컴퓨터로 거래 가능. **2016** 스마트폰 — 대중적 해외 투자 본격화.

이전엔 한국 시장에 갇혀 "강남 부동산 못 사면 돈 벌 기회 없다"였지만 이제는 미국 증시 진입 가능 시대.

강사 시각: "이 돈이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투자되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움은 있지만 어쨌든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수익을 줬다."

### 가두리 양식장 시대 종료 — 3 트리거



# 강남 2.9배 vs 나스닥 100 (원화) 20배 — 2007~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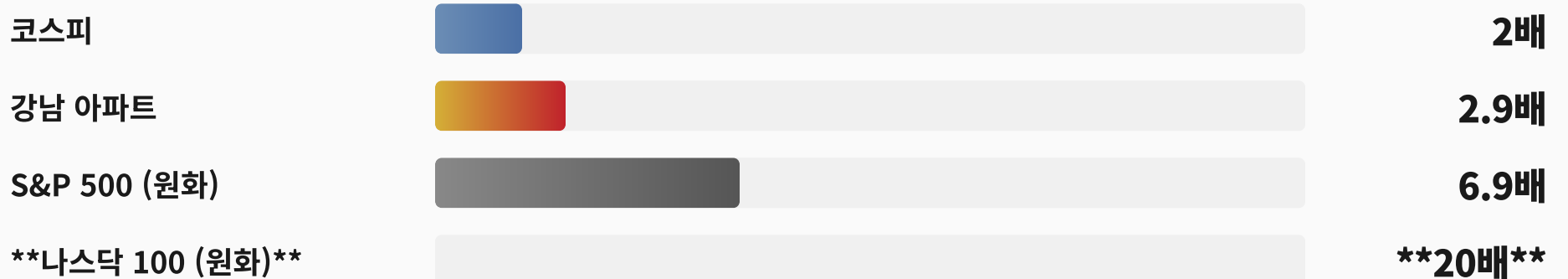
강사의 정확한 정량 비교 (2007~):

코스피 2배 (최근 4,000 도달로 겨우). 강남 아파트 2.9배. S&P 500 (달러) 4.5배, 원화 6.9배.  
**나스닥 100 (달러) 13.1배, 원화 20배.**

2007 환율 930원 → 2025 1,470원 — 원화 가치 하락이 환차익으로 미국 주식 수익률을 증폭.  
**강남 아파트조차 나스닥 100의 1/7 수익률.**

가두리 양식장 시대가 끝났다는 정확한 정량 증거. 이제 강남 아파트 살지 말지 고민할 시대가 아니라 글로벌 시각으로 보는 시대.

■ 2007~2025 수익률 — 한국 vs 미국



**강남 아파트조차 나스닥 100의 1/7 수익률**

## 노동 소득 < 자본 소득 — 60대+ 정치 메커니즘

강사가 짚는 시대 메시지 — 노동 소득보다 자본 소득의 수익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현상.

더 결정적인 변화: 60대 이상 인구 2~3배 증가 → 투표권 ↑. 60대+ 주 수입은 월세·금융·주식 (자본 소득) → **자본 소득 세율 ↓ 정권 선호**. 청년 주 수입은 근로 소득 (노동 소득) → 노동 소득 세율 ↑ 정권.

강사가 "이 세상이 오는 걸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유권자 숫자는 막을 수 없다"고 명시. **자본 소득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게 중요한 시대.**

추가로 — 원화 가치가 1년 만에 10% 떨어진 상태. "종잣돈 1억 모아서 투자"라는 발상은 나이브 — 종잣돈 모으는 동안 원화 가치 녹아남.

## 한국 통화량 +21% vs 미국 +3% — 4배

강사가 짚는 2022~ 한국 통화 정책의 특이성:

지난 4년 동안 **한국 통화량 +21%** vs 미국 +3%. 통계 기준 변경 후에도 한국 +15% vs 미국 +3% — 여전히 5배. 2022~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2%p 초과한 **41개월 역대급 역전**.

한국은행은 미국이 긴축할 때도 "**한국판 스텔스 양적완화**" (RP 매입)로 돈 풀기. 결과 환율 2022-01 1,100원 → 2025 1,470원 추락.

"통계 기준 바뀌도 골을 자꾸 먹으니 골대 위치를 바꾼 것과 같다"는 강사 정확한 비판.

### ■ 한국 vs 미국 통화량 (지난 4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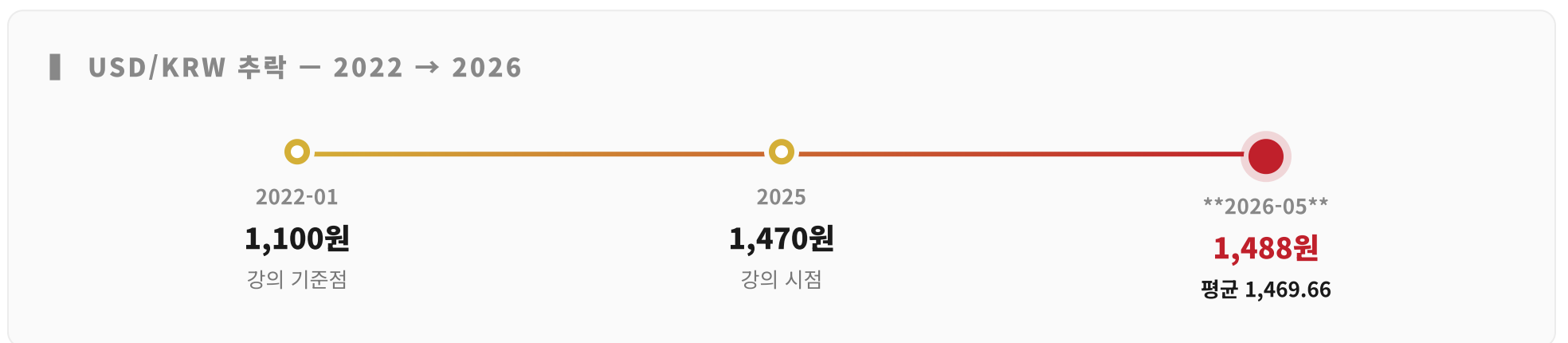
국가	통화량 증가율
한국	+21% (통계 변경 후도 +15%, 미국 5배)
미국	+3%

# 환율 2022 1,100원 → 2025 1,470원 → 5월 1,488원

강사가 짚는 환율 추락의 정확한 정량:

2022-01 1,100원 → 2025 1,470원. 강의 후 흐름 [2026-05-13 USD/KRW 1,488.54](#). 5월 변동 1,440~1,493원. 2026 평균 1,469.66원. (†3)

강사의 환전 트리거 = **지난 3년 평균 1,356원 미만일 때**. 현재 1,470~1,488원이라 환전 대기 모드. 강사 "원화 4배속 추락" 패러다임이 정확 발현되고 있는 모습.



†3 USD/KRW 2026-05 1,488 [exchangerates.org.uk](https://exchangerates.org.uk)

# 2026 약달러 vs 강달러 — 양면 위협

강사가 짚는 두 가지 시나리오:

**약달러:** 트럼프 감세 + 확장 재정 정책. 천문학적 적자 국채 → 미국도 양적 완화 재개 불가피. 신임 연준 의장 케빈 해셋(킹 비둘기) 2026-05 취임 가능.

**강달러 위협:** 대규모 관세 → 미국 수입 ↓ → 달러 품귀. AI 혁명 자본 시장 → 글로벌 자본 미국으로 몰림. 천문학적 재정 적자 → 단기 미 국채 매수 → 달러 품귀 가속.

**가장 위험한 변동성** — 글로벌 헤지펀드 달러 숏베iting 천문학적 규모. 달러 강세 돌아서면 **숏커버링** 폭증 → 환율 폭등 위험.

강의 후 흐름이 강사 진단과 다르게 발현. [트럼프는 2026-01-30 케빈 워시를 지명](#) — 해셋이 "트럼프와 너무 가깝다" 우려로 밀림. 강사가 후속 Q&A(qna\_part2\_03)에서 "매파 워시 + 하이브리드"로 시각 갱신. (+ 1)

## 2026 약달러 vs 강달러 — 양면 위협

측면	요인
약달러	트럼프 감세 + 양적완화 재개 + 케빈 해셋
강달러	관세 → 수입 ↓ + AI 자본 + 단기 미 국채 매수 → 달러 품귀

# 노아의 방주 — 달러 5 : 금 1

강사가 2019년부터 일관 권고해온 자산 배분 — 노아의 방주:

**1번 달러** — 원화 자산 vs 달러 자산 **1:1 비율**. 환전 원칙 = **지난 3년 평균보다 낮을 때** (현재 평균 1,356원). 추가 전략 — 매월 동일 금액 환전 + 환율 N배 낮을 때 N배 환전 옵션.

**2번 헤지** — 금 — 달러 5 : 금 1 비율. 강사는 "달러도 엄청나게 찍어내는 시대, 달러에 대한 헤지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금"이라 짚음.

비트코인은 헤지 X — 나스닥 동조, 미국 강세 = 비트 ↑. 미국 제도권 편입 후 "미국 유동성 노예"로 변질. 은은 산업재 특성 → 경기 침체 시 폭락 가능.

## 강사 노아의 방주 권고 비율

원화 : 달러 자산



**\*\*1 : 1\*\***

**\*\*달러 : 금\*\***



**\*\*5 : 1\*\***

**달러 + 금 두 축이 시리즈 전체 권고의 핵심**

## 비트코인 헤지 X / 은 산업재 특성

강사가 짚는 자산별 특성:

**비트코인** — 나스닥 동조. 미국 강해질수록 ↑, 미국 약해지면 ↓. 미국 제도권 편입 후 "미국 유동성 노예"로 변질. **달러 헤지로는 X**. 다만 나스닥 상승에 베팅한다면 옵션.

**은** — 금과 비슷한 헤지 자산이지만 **산업재 특성**도 있음. 경기 침체 시 금보다 가격 하락 폭이 더 큼. 변동성 유의.

**결론** — 달러의 진짜 헤지는 **금**이 가장 적당.

### ■ 자산별 헤지 특성

자산	특성
금	달러 헤지 적합 — 인플레이·재정 적자에 강함
비트코인	헤지 X — 미국 유동성 노예, 나스닥 동조
은	헤지 가능 but <b>산업재 특성</b> — 경기 침체 시 폭락

## 나스닥 변동성 — 50%+ 사례 3건 + 회복 15년

강사가 짚는 나스닥 변동성 주기:

-20% 4~5년 주기 / -30% 7~8년 주기 / -50%+ 15~20년 주기.

-50%+ 사례 3건 — 1973 (-60%, 회복 6년) / 2000 닷컴 (-78%, 회복 15년) / 2008 (-56%, 회복 3년). 2000년은 5,000 → 1,000 5분의 1 토막 — 사람들이 진짜 미쳐 나간 시기.

[Morgan Stanley 학계 분석에서 2000년 -81.76%, 회복 2015-02 \(15년\)](#) 강사 진단 정합. (†4)

"무조건 나스닥은 오른다"는 상승장 한정. 하락기 인간 심리로 8개월~40개월 버티기 불가능.

### ■ 나스닥 50%+ 사례 — 회복 기간



†4 Morgan Stanley 나스닥 학계 [morganstanley.com](http://morganstanley.com)

## 변동성 4 전략 — 거시 + 단단한 포트

강사가 짚는 변동성 대비 4 전략:

1) 파티 끝 직전 떠나기 — 포기. 워런 버핏도 "나도 불가능"이라 했음. 2) 2~3년 하락장 견디기 — 드물지만 가능. 3) 거시경제 읽고 선제 대응 + 자산 배분 방어적 — 권장. 4) 단단한 포트폴리오 (5:5) — 권장. 안전·위험 비율 고정 + 떨어질 때 추가 매수.

강사 결론 — 3·4번이 인간 본성에 맞는 전략. 거시경제 모르면 안전 자산 자체를 정의 못 함.

다음 카드에서 안전 자산이 거시 환경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봅니다.



## 강의 명시 결론 — 노아의 방주 + 거시 읽기

본 회차는 박종훈 지식한방의 첫 세미나이자 시리즈 출발점입니다. 강사의 핵심 노아의 방주 전략이 처음부터 명확히 박힌 회차.

**1) 노아의 방주 — 달러 5 : 금 1 + 원화 1 : 달러 1** (강사 2019~ 일관). 환전 = 지난 3년 평균 1,356원 미만일 때. **2) 거시경제 읽기 훈련** — 안전 자산 정의 자체가 거시 환경 따라 바뀜. **3) 자본 소득으로 미래 설계** — 노동 소득 < 자본 소득 시대.

박종훈의 경제 로드맵 1년 프로그램 Why + How 시작. 본 회차의 시각이 part1\_02~part2\_04 시리즈에서 정밀화·확장됩니다 — 다음 강 part1\_02 "역사 속 돈의 몰락"에서 5단계 몰락 메커니즘으로 진입.

1980~2025 공무원 월급 8.6배 vs 은마아파트 243배 — 노동 소득과 자산 가격의 비대칭 시대. 미 연준 + 한국 부동산 쏠림 정책이 근본 원인. 노아의 방주 = 달러 5 : 금 1 + 원화 1 : 달러 1. 환전은 지난 3년 평균 1,356원 미만일 때. 가두리 양식장 시대는 1999/2007/2016으로 끝났고 이제 글로벌 거시경제 읽기가 필수.

다음 강 — Part 1-2강

### 역사 속 돈의 몰락

데나리우스 95→1% / 5단계 몰락 메커니즘 / 닉슨 쇼크 + 캔틸런 효과

본 콘텐츠는 강의 정리 목적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·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. 외부 자료(+1~+4)는 강의 시점 이후 정량 변화와 사례 후속을 보강합니다.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